

시험을 이기는 길, 기도

누가복음 22:39-53

【인도자를 위한 예화】

기도에 관한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인적 드문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사자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너무 무서워 어찌할 바를 모르던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세요. 저 사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뜨자 놀라운 광경이 앞에 펼쳐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삼킬 듯이 으르렁거리던 사자가 무릎을 꿇더니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유머는 기도에 관한 관점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또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는 찾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성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관점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나의 뜻을 접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신앙인의 모습을 잃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큰 상급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는 내 중심인가요, 하나님 중심인가요?

【본문 읽기】 누가복음 22:39-53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 찾은 장소는 감람산 서쪽 중턱에 있는 ‘갯세마네’로 추측됩니다(마 26:36; 막 14:32). 이곳은 제자들과 함께 습관적으로 모여 기도하던 장소인 동시에 위험을 피해 은둔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leaney). 예수님은 이곳에서 기도하시며 사역을 준비하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체포되면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당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에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밖에 방법이 없음을 알려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병행 본문과 비교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선별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관심이 그들이 기도하지 않은 일보다 제자들의 슬픔과 피곤함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22:45). 예수님은 육신이 지치고 피곤한 상황에서 어려움이나 시험이 닥칠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 내는 방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호소하는 것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비롯해 중독과 같은 잘못된 습관을 이길 유일한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제자들과 함께 가신 장소는 어디였나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나요?(39-40절)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제자들과 함께 가신 장소는 감람산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특별히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지,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신만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몸소 보여 주십니다. 기도가 일종의 루틴(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매일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잠을 자듯이 말입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호흡처럼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로 세상의 유혹(돈, 섹스, 권력 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애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하게 합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에 가뭇 유다가 무너졌으며, 베드로도 무너집니다. 이 같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방법은 기도입니다. 사탄을 이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교자 하십니다.

적용과 나눔 I

내가 기도하기 힘들 때는 언제인가요?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중에도 특별히 힘들고 어려워 신음조차 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두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시 116:4). 이때 굳이 입 밖으로 크게 소리 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마음에 그리며 생각만 해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그분의 임재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린 호흡까지 느끼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점차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인정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은 내 편이 되어 내 곁에서 나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관찰과 묵상 II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 하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나요?(52-53절)

예수님은 강도를 잡는 것같이 자신을 잡으려 왔다고 하시며, 이제는 그들의 때요 어둠의 권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며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분을 붙잡기 위해 성전 경비대에 검과 몽치를 들리고 가롯 유다를 앞세워 겐세마네로 보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와 계획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배후에서 영적으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인간의 의지와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이면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강력한 영향이 있습니다.

앞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만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의 말은 진심이였을지 모르니다. 하지만 그가 미처 몰랐던 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적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악과 싸워 능히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꺾으십니다.

적용과 나눔 II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 받고 핍박당한 적이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이 선한 행동을 하는데도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분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심지어 강도를 대하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그 이유를 용과 여자 그리고 아이에 비유해 설명합니다. 출생한 아이는 예수님이며, 용은 마귀요 사탄이고, 여자는 교회입니다. 마귀요 사탄인 용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그 대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씀대로 행하며 살고자 하는 이들은 이유 없는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영적 어둠의 세력인 사탄이 성도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천국의 복이 임하며 하늘에서 상이 큼을 기억합시다.